

소소한 순간의 행복 휴식 같은 화폭에 담다

갤러리 이디 나강 초대전 '휴' 주제로 이달 8일부터 일상 속 느긋한 삶의 방식 '관조' '벚꽃 나들이' 연작 등 밀도 높은 회화에 생명력



나강 작가

돌이켜보면, 그는 빛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서양화가였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1985년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그가

첫 개인전을 가진 해는 2014년. 육아로 바쁜 나날에도 열정을 안고 단체전 등에 참여하며 창작에 대한 감각을 유지했다. 그 덕에 2014년을 기점으로 도내의 갤러리 초대전 등 지금까지 20회 가까이 개인전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작업은 거듭 변모했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테왁에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 켈트 등 평면을 벗어나 여러 재료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즈음 고향처럼 돌아온 회화 작업으로 주목받는 건 그간의 부단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휴(休)'를 주제로 이달 8일부터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ID) 초대전을 갖는 나강 작가가.

나 작가는 제주 출신 남편과 함께 1992년부터 제주살이를 시작했다. 약 30년을 제주에서 살아온 그의 작품엔 일찍이 제주가 내려앉았다. 근래 작업의 주제로 삼고 있는 '휴'에도 일상 속 숨을 안기는 제주 자연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울한 나날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쉬어 가는 느긋한 삶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가리켜준다고 말한다. 당연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2020년과 2021년. 나는 매일 감사할 무언가를 찾는다."

나강 작가의 작업 노트 속 한 구



나강의 '휴식'. 가로 2m에 이르는 대작으로 소소한 순간의 행복을 담고 있다.



나강 제주 바다가 펼쳐지는 '관조'.

절이다. 그는 소소한 순간에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에 집중한 그 행복감을 캔버스에 아크릴물감으로 표현했다. '벚꽃 나들이', '휴식', '관조', '수영장' 연작 등 갤러리 이디에 걸리는 밀도 높은 회화 20여 점은 우리가 놓쳤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강북삼성병원 갤러리, 서울아산병원갤러리, 노리 갤러리 초대전에 이은 올해 네 번째 '휴' 주제전으로 앞서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로 관람객들과 '휴식'을 나눈다.

대작을 위주로 늘 새로움을 모색해온 그의 작품 안에는 공통적으로

사람이 있었다. 한국미술비평연구소 대표인 장준석 평론가는 이를 "휴머니즘적 생명력과 이미지"라고 불렀다. 장 평론가는 "나 작가는 삶에 대한 조형적 투영력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하다"며 "그러기에 마치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평온함, 온화함과 더불어 순수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풍요로운 인간미와 신선함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별도의 개막 행사는 치르지 않는다. 전시는 10월 22일까지. 관람 예약 문의의 750-2543. 전신회기자

제주 작가 미술품 유통 활성화 첫발

지난 6월 지원 조례 제정
추경 확보 문예재단 시행
대구아트페어 작가 선발
작품 임대 50여 곳 전시도

지난 6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 작가 미술품 유통 지원에 나선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9000만원)을 확보해 제주 작가의 국내 아트페어 참여 지원 사업과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사업을 잇따라 펼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시각예술인들의 미술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시설에 미술품 임대·전시 등을 통한 창작 활성화 등을 취지로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엔 도내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는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 유치, 미술품 유통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운영 등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미술은행 사업' 조항도 별도로 뒤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해 제주도도와 하부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전시하는 미술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첫발을 떤 이번 아트페어 참가 작가 지원 사업은 11월 4-7일 대구컨벤션센터에서 대구화랑협회 주

최로 열리는 '대구아트페어 21'과 연계해 치른다. 제주문화재단은 대구아트페어 21에 참가할 3-4명의 제주 작가를 선발해 현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인전 2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작가로 공고일인 9월 1일 현재 1년 이상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사업은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제주 작가 작품을 임대해 공공시설에 전시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미술작품 향유 기회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임대 전시는 제주도청 1청사, 제주도내 보건지소와 진료소 50여 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문화재단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3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임대·전시 지원 사업 시행자를 공모한다.

제주문화재단은 "미술품 유통이 어려운 제주 지역 작가에게 미술시장에 진출해 판로를 개척하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의 마중물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도민에게도 코로나19로 피로한 일상을 예술작품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의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800-9131.

전신회기자 sunny@ihalla.com

7주 동안 또 다른 '나'를 찾는 여정

자연사랑미술관 프로젝트
관찰과 기록 '나와 나' 진행

자신의 일상과 내면을 관찰하며 기록하고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귀포시 표현전 가시리에 있는 포트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여가 프로그램 '유연한 함께 살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흠-나와 나'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달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자연사랑 미술관에서 이어진다. 나를 찾아가고 싶은 1인 가구 프리랜서 예술인, 7주 동안 나를 표현하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싶은 사람 등을 모집해 뷰파인

더, 줌인, 프레임, 조점, 필터, 셔터, 줌아웃이란 이름 아래 또 다른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디자인, 음악, 연극, 사진 등 여러 방식으로 담아내게 된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추후 전시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미술관의 서민정 에듀케이터는 "나의 공간에서,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생각 속에서 나를 찾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내가 몰랐던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참가 문의 010-3084-0316(문자 메시지). 전신회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받은 바람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 고효율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셔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